

# 여성 헤어스타일에 대한 남성 지각자의 이미지 평가 및 선호도 연구

이 명 희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 The Male Perceiver's Image Evaluation and Preference of Women's Hairstyle

Myoung-Hee Lee

Prof., Dept. of Clothing & Textiles, Sungshin Women's University

(2007. 7. 19. 접수; 2007. 8. 2. 채택)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ale perceiver's image evaluation on women's hairstyle and hair color, and to disclose the preference of the hairstyle and hair color.

The experimental design was 2×3×3 (hair wave×hair length×hair color) factorial design by 3 independent variables. The stimuli were 18 women's upper body photographs which were output by computer simulation. The hairstyles were straight hair and wavy hair, and the types of the hair length were long, medium, and short hair. The hair colors were black, dark brown, and bright brown. Subjects were 154 men living in Seoul. The data were analyzed by using factor analysis, Cronbach's  $\alpha$  reliability coefficient, three-way ANOVA, one-way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our image dimensions were derived by factor analysis. These were individuality, elegance, potency, and attractiveness. Male perceivers evaluated the women's long hairstyles to be more elegant than the short and the medium length hairs. The women's short hairstyles were perceived more potent than the long and the medium length hairs. The straight hairs were evaluated more elegant than the permed hairs, and the permed hairs were evaluated higher in individuality and attractiveness. The black hairs were perceived lowest in attractiveness, and the bright colors were perceived low in elegance. Male preferred the long brown straight hair first. They liked women's long hairs better than the short and the medium length hairs. Teenaged males preferred various hair colors more than those in their 20's and 30's did.

**Key Words:** Image evaluation(이미지 평가), Hair style(헤어스타일), Hair length(헤어길이), Hair color(헤어컬러), Male perceiver(남성 지각자)

---

Corresponding author ; Myoung-Hee Lee

Tel. 82-2-920-7198, Fax. 82-2-920-2074

E-mail : mhlee@sungshin.ac.kr

## I. 서론

오늘날 외모의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이 신체 전반에 걸쳐 확산되는 가운데 헤어스타일은 외모의 구성요소로서 개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어왔으며,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다양한 컬러와 새로운 형태의 헤어스타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려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좁은 의미의 헤어스타일에는 헤어길이, 퍼머여부, 앞머리 등의 머리형태가 포함되나, 넓은 의미의 헤어스타일에는 헤어길이, 머리형태와 함께 헤어컬러를 포함하여 서술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헤어스타일과 헤어컬러를 분리하여 조사하며, 헤어스타일에 헤어길이와 퍼머여부를 포함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헤어스타일은 인상형성의 과정에서 지각대상자가 지각자에게 제공하는 외적 단서 중 하나로 얼굴매력에 영향을 준다.<sup>1)</sup> 도주연<sup>2)</sup>, 윤소영<sup>3)</sup>, 정해선, 강경자<sup>4)</sup>는 헤어길이에 따른 이미지 평가의 차이를 연구하였고, 윤지성<sup>5)</sup>, 김재숙, 류지원<sup>6)</sup>, 김재숙 등<sup>7)</sup>은 헤어컬러에 관한 내용을, 한명숙, 하희정<sup>8)</sup>은 헤어스타일과 헤어컬러에 대한 고정관념을 연구하였다. 이들 대부분의 연구에서 헤어스타일과 헤어컬러는 상대방의 이미지를 평가하는데 의미있는 영향을 주는 특성을 나타냈다. 그러나 지금까지 헤어스타일에 관한 연구는 주로 여성 지각자를 대상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헤어스타일과 헤어컬러의 상호작용을 조사한 내용은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헤어 디자인의 다양한 변화가 증가되고 있는 현 추세에서 남성 지각자를 대상으로 여성의 헤어스타일 및 헤어컬러의 이미지 평가와 선호도를 조사하면서 헤어 디자인 요소의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려고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 헤어스타일의 퍼머여부, 헤어길이와 헤어컬러에 따른 남성 지각자의 이미지 평가와 선호도를 파악하며, 지각자의 연령에 따라 헤어스타일과 헤어컬러의 선호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데에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여성 헤어스타일과 헤어컬러에 대한 남성의 평가가 어떠한가를 이해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각 개인이 바람직한 외모를 지니는 데 필요한 단서

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II. 선행연구 고찰

### 1. 헤어스타일

헤어스타일은 직모와 웨이브, 헤어 길이 등에 의하여 변화되며, 현대인은 퍼머넨트 웨이브 시술로서 헤어스타일을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퍼머넨트 웨이브의 곡선적인 소프트 웨이브는 자유스럽고 편안한 이미지를 주며, 직선적인 스트레이트와 롤스트레이트 웨이브는 정돈된 이미지를 줄 수 있다.<sup>9)</sup>

도주연<sup>10)</sup>은 헤어스타일에 의한 얼굴 이미지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에서 직모는 수수한, 자연스러운, 청순한 이미지를, 컬은 성숙한 이미지를 준다고 하였으며, 머리 길이에 따라서는 짧은 머리는 현대적인, 적극적인 이미지, 중간머리는 평범하며, 긴 머리는 여성적이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준다고 하였다. 김복숙<sup>11)</sup>은 헤어스타일 인상 요인을 성숙·현시성, 호오성, 용모성, 독특성의 4개 요인으로 분류하였고, 윤소영<sup>12)</sup>은 헤어스타일의 인상형성 요인을 호의성, 세련성, 품위성, 개성 요인으로 구분하였는데, 호의성은 긴 머리, 컷머리, 단발머리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세련성은 컷머리와 단발머리가 모두 긴 머리에 비하여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품위성은 긴 머리 스타일이 가장 높았고, 단발머리 스타일이 가장 낮았다. 정해선, 강경자<sup>13)</sup>의 연구에서는 헤어길이가 긴 경우 스트레이트일 때 가장 세련되고 보기 좋으며 매력적으로 지각되었다.

Peterson과 Curran<sup>14)</sup>은 남성 머리형의 변화에 대한 여대생의 지각에 대하여 연구하였는데 짧은 머리의 남성은 지적이고 도덕적이며 적응력이 높게 보였으며, 짧은 머리의 남성을 선호하는 여성은 보수적인 반면, 긴 머리의 남성을 선호하는 여성은 보다 진보적으로 나타났다. 임남영, 강승희<sup>15)</sup>는 남성 헤어스타일에 관한 연구에서 직장인, 학생 모두 스포츠형의 헤어스타일이 일반형의 헤어스타일보다 사교성이 높게 지각된다고 하였다. 두발 고정관념에 관한 한명숙<sup>16)</sup>의 연구에서 매우 짧은 커트는 '남학생답다'와

‘남선생님답다’는 평가가 높았고, 단발 직모와 긴 직모는 ‘여학생답다’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선생님답다’는 평가는 짧은 커트, 단발 직모, 긴 직모, 긴 웨이브, 업스타일에서 높게 지각되었다.

한유정, 정현주<sup>17)</sup>는 남자 대학생의 여성 웨딩 헤어디자인에 대하여 연구하였는데, 웨딩헤어 요인은 장식적, 호의적, 개성적, 부드러운, 귀여운 이미지로 분류되었다. 특히 부드러운 이미지는 헤어스타일이 베일보다 더 큰 영향을 주어 올림형 머리보다 밀머리형이 부드럽게 지각되었고, 헤어스타일과 베일은 상호작용하여 인상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 여자 앵커의 지각을 연구한 오인영, 김인숙<sup>18)</sup>의 연구에서 인상형성 요인은 전문성, 친근성, 품위성, 역동성, 매력성으로 분류되었는데, 5개 요인 모두 쇼트컷형이 단발형보다, 스트레이트형이 웨이브형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남자 지각자는 앞머리 변인에 따라 평가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여자 지각자는 앞머리를 내린 경우를 안 내린 것보다 역동성이 높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평가하였다.

## 2. 헤어컬러

개인의 헤어컬러는 염색, 탈색, 코팅 등으로 색채를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데<sup>19)</sup>, 이은지<sup>20)</sup>는 헤어 염색이 커트나 퍼머먼트 등의 다른 시술보다는 기본전환이나 이미지 변신에 더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Kyle와 Mahler<sup>21)</sup>는 회계원 취업지원자의 능력 판단에 여성의 헤어컬러와 화장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검은 머리 여성이 붉은 색 및 금발 머리보다 높은 급여가 책정되면서 능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화장을 하지 않은 여성이 색채화장을 한 여성보다 능력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김재숙, 류지원<sup>22)</sup>은 노랑색과 붉은색 헤어는 눈에 띄고 화려하며, 현시적이고, 사교적으로, 갈색과 검은 갈색은 역동적으로 평가된다고 하였다. 또한 약간 짧은 머리의 검은 갈색과 갈색 헤어가 다른 헤어길이와 헤어컬러의 조합에 비해 더 역동적으로 평가되었다. 윤지성<sup>23)</sup>은 갈색이나 붉은색의 헤어컬러는 진보적이고 매력적

이며 화려한 이미지로 나타나 긍정적으로 지각되며, 검정색 헤어는 부정적으로 지각된다고 하였다.

김재숙 등<sup>24)</sup>의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헤어컬러의 변화가 커플들의 매력성과 역동성 평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둘 다 검정머리인 경우 다른 색 머리보다 더 다정하며, 신뢰감 있어 보이며,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한명숙, 하희정<sup>25)</sup>은 두발의 색이 검정색일 경우 더욱 남성성이 높게 평가되며, 갈색은 여성성이 높게 평가된다고 하였다. 민유숙 등<sup>26)</sup>의 연구에서는 남자 고등학생들의 경우 여교사의 긴머리, 스트레이트 스타일, 검정색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으나, 여자 고등학생들은 어깨길이 머리, 붉은 퍼머, 자연갈색의 선호도가 가장 높아, 남자는 여자보다 여교사의 검정색 헤어컬러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여성 헤어스타일과 헤어컬러에 대한 남성 지각자의 이미지 평가의 차원을 조사한다.

둘째, 여성 헤어스타일의 퍼머여부, 헤어길이와 헤어컬러에 따른 남성 지각자의 이미지 평가를 규명한다.

셋째, 여성 헤어스타일의 퍼머여부, 헤어길이와 헤어컬러에 대한 남성 지각자의 선호도를 파악한다.

넷째, 남성의 연령에 따른 여성 헤어스타일과 헤어컬러의 선호도 차이를 알아본다.

### 2. 측정도구

본 연구는 3개의 독립변인에 의한 2×3×3(퍼머여부×헤어길이×헤어컬러)의 요인설계를 사용하였다. 실험 자극물은 퍼머여부(2), 헤어길이

(3), 헤어컬러(3)로 변화를 준, 총 18종류의 컬러 출력물이었다. 자극물의 모델은 23세의 서울 거주 여성으로서 타원형 얼굴이며, 의복은 라운드 넥라인의 흰색 원피스를 착용하였다. 자극물의 제작을 위하여 여성 모델의 사진을 컴퓨터에 입력하여 CAD시스템으로 헤어스타일을 바꾸었다. 헤어스타일은 퍼머여부와 헤어길이를 변화 주었으며, 퍼머여부는 웨이브진 퍼머 머리와 직모를 사용하였다. 헤어길이는 짧은 머리, 중간 길이(턱밑 1cm 정도), 긴 머리를 택하였다. 헤어컬러는 6가지 헤어스타일을 검정, 갈색, 밝은 갈색으로 변화시켰다. 모델의 배경은 연회색이었으며, 자극물의 크기는 8×9cm였다.

의미미분척도는 선행연구<sup>27),28),29),30)</sup>를 참고로 하여 총 15개의 형용사 쌍을 선정하였으며, 7점 양극 형용사 쌍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자극물의 선호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7점 척도 문항 1개를 포함하였다. 헤어스타일과 헤어컬러의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6종류의 헤어스타일과 3종류의 헤어컬러를 포함하여, 총 9개 항목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였으며,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질문지는 자극물과 함께 인상차원을 측정하는 의미미분척도 문항, 자극물의 선호도, 일반적인 헤어스타일과 헤어컬러의 선호도, 피험자의 연령을 조사하는 문항을 포함하였다.

### 3.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지각자로서의 피험자는 서울의 18-39세 남성 154명이었으며, 18-19세가 29명, 20-24세가 71명, 25-30세가 33명, 30-39세가 21명이었다. 20대 전기는 대학생 집단이 많으며, 20대 후기는 일반 사회인에 속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20대를 전, 후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자료수집 시기는 2005년 10월이었다.

질문지의 자극물은 헤어스타일과 헤어컬러를 다르게 조합하여 2개의 자극물을 1세트로 만들었으며, 총 18개의 자극물이 9세트로 구성되게 하였다. 따라서 1명의 피험자가 2개의 자극물에 응답하게 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산 처리하였으며, 통계분석방법은 요인분석, Cronbach's  $\alpha$  신뢰도 계수 산출, 삼원변량분석, 일원변량분

석,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을 실시하였다.

## IV. 결과 및 논의

### 1. 퍼머여부, 헤어길이, 헤어컬러에 따른 이미지 평가의 요인분석

이미지를 평가하는 의미미분척도 형용사 15 문항에 대하여 주성분분석과 Varimax 회전법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때 최소 고유치 1 이상의 기준에 의하여 4개 요인을 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1>과 같다.

요인 1은 돋보이는-돋보이지 않은, 적극적인-소극적인, 개성적인-비개성적인 등이 포함되어 개성 요인이라 칭하였고, 요인 2는 우아한-우아하지 않은, 품위 있는-품위 없는, 청순한-청순하지 않은, 지성적인-지성적이지 않은 등이 포함되어 품위 요인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3은 유능한-무능한, 전문가다운-전문가답지 않은, 세련된-촌스러운 등이 포함되어 능력 요인이라고 하였고, 요인 4는 귀여운-귀엽지 않은, 매력 있는-매력 없는 등이 포함되어 매력성 요인이라고 하였다. 모든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50 이상이였다. 각 요인의 Cronbach's  $\alpha$  신뢰도계수는 요인 1에서 요인 4까지 각각 .85, .83, .77, .73으로서 신뢰도가 만족할만 하였다.

본 연구에서 품위, 능력, 매력성 요인의 도출은 홍병숙, 정미경<sup>31)</sup>, 이주현, 조공호<sup>32)</sup>, 윤소영<sup>33)</sup> 오인영, 김인숙<sup>34)</sup> 등의 연구와 일치하였고, 개성 요인은 임남영, 강승희<sup>35)</sup>, 한유정, 정현주<sup>36)</sup>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상에서 결정된 4개 요인은 문항점수를 합하여 문항수로 나눈 값을 사용하였으며, 이 값은 계속되는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각 요인은 점수가 높을수록 앞쪽에 위치한 형용사의 특성과 그 요인의 성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 2. 퍼머여부, 헤어길이, 헤어컬러에 따른 이미지 평가

퍼머여부, 헤어길이, 헤어컬러에 따른 인상평

<표1> 헤어스타일 이미지의 요인분석

요인 1. 개성	요인 부하량
돋보이는 - 돋보이지 않은	.78
적극적인 - 소극적인	.77
개성적인 - 비개성적인	.74
사교적인 - 비사교적인	.69
능동적인 - 수동적인	.59
전체변량(%)= 23.42, 누적변량= 23.42, 고유치= 3.51	
요인 2. 품위	요인 부하량
우아한 - 우아하지 않은	.85
품위 있는 - 품위 없는	.82
청순한 - 청순하지 않은	.68
지성적인 - 지성적이지 않은	.62
단정한 - 단정하지 않은	.60
전체변량(%)= 19.34, 누적변량= 42.76, 고유치= 2.90	
요인 3. 능력	요인 부하량
유능한 - 무능한	.76
전문가다운 - 전문가답지 않은	.75
세련된 - 촌스러운	.50
전체변량(%)= 14.78, 누적변량= 57.54, 고유치= 2.22	
요인 4. 매력성	요인 부하량
귀여운 - 귀엽지 않은	.87
매력 있는 - 매력 없는	.69
전체변량(%)= 12.53, 누적변량= 70.07, 고유치= 1.88	

<표2> 퍼머여부, 헤어길이, 헤어컬러에 따른 이미지 평가

변량원		df	개성 F	품위 F	능력 F	매력성 F
퍼머여부(A)		1	94.36**	60.86**	2.31	21.82**
헤어길이(B)		2	1.47	4.17*	3.40*	1.50
헤어컬러(C)		2	29.18**	29.44**	0.80	3.28*
A × B		2	2.42	1.10	0.92	3.55*
A × C		2	7.65**	2.50	2.72	1.71
B × C		4	0.64	1.01	1.39	2.59*
A × B × C		4	0.42	2.50*	0.53	0.87
변인	속성	N	M	M	M	M
퍼머여부	직모	145	3.92	4.18	3.88	3.86
	퍼머	143	5.08	3.27	4.15	4.60
헤어길이	짧은	98	4.64	3.64 b	4.27 a	4.21
	중간	96	4.47	3.57 b	3.89 b	4.07
	긴	94	4.35	3.98 a	3.87 b	4.40
헤어컬러	검정	96	3.99 c	4.10 a	3.88	3.94 b
	갈색	97	4.41 b	3.99 a	4.11	4.37 a
	밝은 갈색	95	5.09 a	3.09 b	4.04	4.37 a
개채간	R <sup>2</sup>		.40	.36	.09	.17
효과검정	F		10.75**	8.90**	1.58	3.33**

\* p<.05, \*\* p<.01. a, b, c: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가의 상호작용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2>와 같다.

주효과를 볼 때 퍼머여부는 개성, 품위, 매력성 평가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고 능력 요인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평균을 비교해 보면 직모는 퍼머보다 품위가 높게 평가되었고 퍼머는 직모보다 개성과 매력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즉 남성들에게 여성의 퍼머머리는 직모보다 매력적이며 개성적으로 지각된다고 할 수 있다.

헤어길이는 품위와 능력 요인 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개성과 매력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결과를 보면 긴 머리는 중간 길이와 짧은 머리에 비해 품위가 높았으며, 짧은 머리는 능력 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긴 머리가 품위가 높았던 것은 도주연<sup>37)</sup>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또한 짧은 머리가 능력 요인이 가장 높았던 것은 직장여성이나 전문직 여성이 짧은 머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되며, 여성의 짧은 머리가 전문성, 역동성이 높았다는 선행연구<sup>38),39)</sup>와 유사한 결과였다.

헤어컬러는 개성, 품위, 매력성의 3개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평균치와 사후검증 결과를 보면 개성은 밝은 갈색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갈색, 검정의 순이었다. 검정은 개성이 가장 낮았으며, 밝은 갈색은 품위가 가장 낮았다. 매력성은 밝은 갈색과 갈색이 높았고, 검정이 가장 낮았다. 즉 남성들에게 있어 여성의 헤어컬러는 개성과 품위가 서로 상반되게 지각되며,

개성과 매력성은 유사하게 평가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남성들은 여성의 검정색 머리에 대하여 개성과 매력성을 낮게 평가하였는데, 선행연구<sup>40)</sup>에서 여성 지각자들도 검정색 머리의 매력적인 이미지를 낮게 평가하였으므로 남녀간의 평가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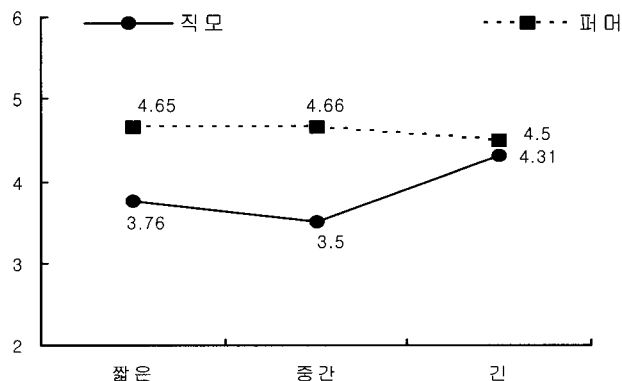
2개의 독립변인에 의한 상호작용효과를 볼 때 개성과 매력성 요인에서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

퍼머여부와 헤어길이에 따라 매력성 평가는 유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으며 그 결과는 <그림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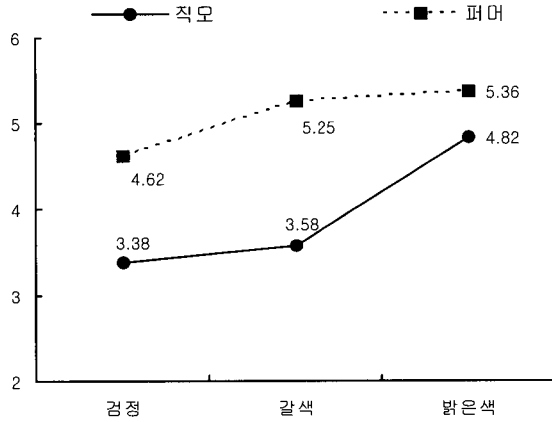
<그림1>에서 보면 퍼머는 길이에 따른 매력성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직모는 짧은 직모와 중간 길이의 직모가 매력성이 낮았고, 긴 직모는 매력성이 높았다. 따라서 짧은 길이와 중간 길이의 경우 직모는 퍼머보다 매력성이 매우 낮게 지각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중간 길이 직모가 가장 매력성이 낮았다.

퍼머여부와 헤어컬러에 따라 개성 평가는 유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으며 그 형태는 <그림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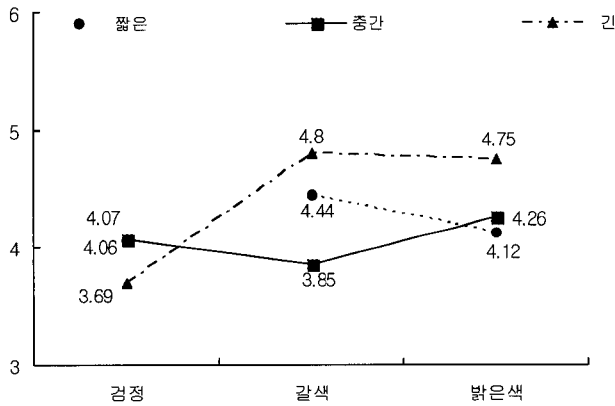
<그림2>에서 밝은 갈색 퍼머는 개성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고 검정색 직모는 개성이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갈색은 퍼머가 직모보다 훨씬 더 개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전체적으로 갈색 퍼머와 밝은 갈색 퍼머가 개성이 높게 평가되었는데 이러한 머리는 전통적인 여성의 모습과 다른 이미지이므로 남성들이 개성적으로 지각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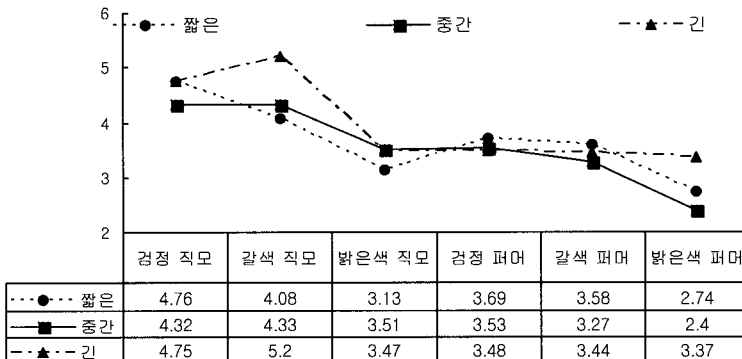
<그림1> 매력성 평가에 대한 퍼머여부와 헤어길이의 상호작용효과



<그림2> 개성 평가에 대한 퍼머여부와 헤어컬러의 상호작용효과



<그림3> 매력성 평가에 대한 헤어길이와 헤어컬러의 상호작용효과



<그림4> 품위 평가에 대한 퍼머여부, 헤어길이, 헤어컬러의 상호작용효과

**<표3> 퍼머여부, 헤어길이, 헤어컬러의 선호도**

변량원	df	선호도 F	종속변인	속성	N	M
퍼머여부(A)	1	9.01**	퍼머여부	직모	145	3.97
헤어길이(B)	2	10.28**		퍼머	143	3.48
헤어컬러(C)	2	4.64**	헤어길이	짧은	98	3.32 b
A × B	2	5.09**		중간	96	3.65 b
A × C	2	.51		긴	94	4.23 a
B × C	4	1.85	헤어컬러	검정	96	3.80 a
A × B × C	4	3.44**		갈색	97	3.99 a
				밝은 갈색	95	3.38 b

\* $p < .05$ , \*\* $p < .01$ . a, b, c: Duncan's multiple range test

헤어길이와 헤어컬러에 따라 매력성 평가는 유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그림3>에서 볼 때 검정색 머리는 길이에 상관없이 모두 매력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갈색은 길이에 따른 매력성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 긴 머리, 짧은 머리, 중간 머리의 순이었다. 남성들이 가장 매력적으로 지각하는 것은 긴 갈색머리였고, 중간 길이의 갈색머리는 매력성이 낮은 편이었다.

품위 평가는 3개의 독립변인에 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으며, 그 결과는 <그림4>와 같다. 긴 갈색 직모는 가장 품위가 높아 우아하게 보였고, 검정색 직모는 길이에 관계없이 품위가 높은 편이었다. 밝은 갈색 퍼머가 대체로 품위가 낮았는데, 중간 길이의 밝은 갈색 퍼머는 가장 품위가 낮았다.

### 3. 자극물의 선호도

자극물의 선호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퍼머여부, 헤어길이, 헤어컬러에 따른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3>과 같다.

<표3>에서 '퍼머여부, 헤어길이, 헤어컬러'에 따라 자극물의 선호도가 달리 나타났다. 평균치를 보면 직모가 퍼머머리보다 선호도가 높았고, 헤어길이에서는 긴 머리가 중간 길이 및 짧은 머리보다 선호도가 높았다. 헤어컬러에 따른 차이에서 갈색과 검정색은 밝은 갈색보다 선호도가 높았다. 앞의 <표2>에서 밝은 색은 품위가 낮게 평가된 색이므로 남자는 품위 없는 여성의 헤어컬러를 선호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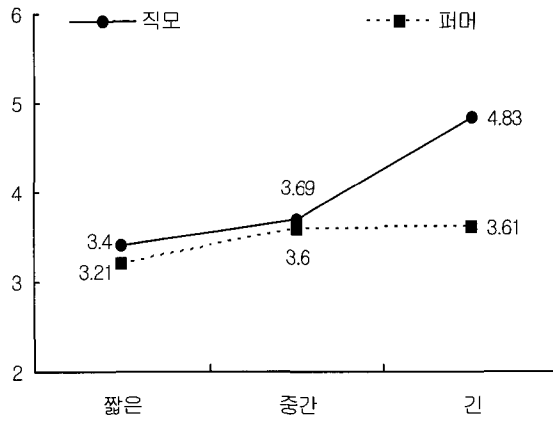
선호도 평가는 퍼머여부와 헤어길이의 2개 변인에 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으며, 그 결과는 <그림5>와 같다. 짧은 머리와 중간 길이의 머리는 직모와 퍼머의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긴 머리는 차이가 크게 있어 퍼머보다 직모의 선호도가 더 높았다. 전체적으로 긴 직모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는데, 이것은 긴 직모는 현재 젊은 여성들에게 유행하는 스타일이므로 남성들이 긴 직모를 자연스럽게 수용함으로써 이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것이라고 해석되며, 선행연구<sup>41)</sup>와 일치하였다.

선호도 평가는 3개 변인에 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으며, 그 결과는 <그림6>과 같다.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은 긴 갈색 직모였고, 두 번째로는 긴 검정색 직모가 선호되었다. 중간 길이의 밝은 갈색 퍼머는 가장 선호도가 낮았고 그 다음에 긴 검정색 퍼머와 짧은 길이의 밝은 갈색 퍼머의 선호도가 낮았다. 특히 긴 머리 중에서는 검정색 퍼머의 선호도가 두드러지게 낮았다. 즉 남성들은 긴 직모는 선호하나 검정색 긴 퍼머머리는 선호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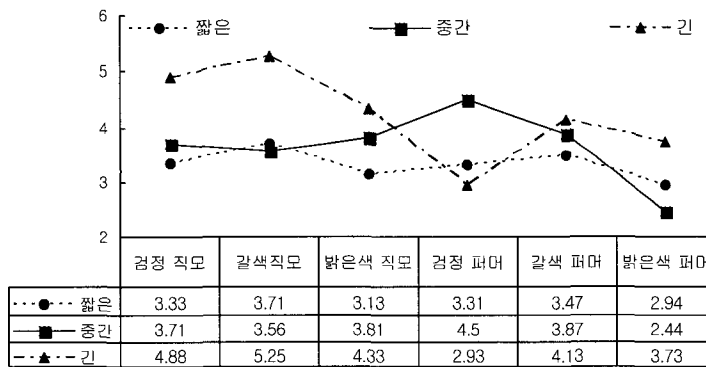
### 4. 연령에 따른 헤어스타일과 헤어컬러의 선호도

남성 지각자의 연령에 따라 헤어스타일과 헤어컬러의 선호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연령집단에 따른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4>와 같다.





<그림5> 선호도에 대한 퍼머여부와 헤어길이의 상호작용효과



<그림6> 선호도에 대한 퍼머여부, 헤어길이, 헤어컬러의 상호작용효과

<표4> 지각자의 연령에 따른 헤어스타일과 헤어컬러의 선호도

헤어		연령	18-19세	20-24세	25-29세	30-39세	F
헤어 스타일	짧은 직모		3.62 a	2.94 b	3.20 ab	3.44 a	7.32**
	중간길이 직모		3.83 a	3.48 ab	3.34 b	3.44 ab	2.71*
	긴 직모		4.52	4.25	4.14	4.44	2.40
	짧은 퍼머		2.31	2.28	2.11	2.00	.91
	중간길이 퍼머		2.76	2.92	2.69	3.22	2.02
	긴 퍼머		3.14	3.11	3.03	3.22	.16
헤어 컬러	검정색		4.28 a	3.96 b	3.91 b	4.22 a	2.83*
	갈색		3.76	3.88	3.83	3.56	1.15
	밝은 갈색		3.34 a	3.39 a	2.83 b	3.22 ab	5.90**

\*  $p < .05$ , \*\*  $p < .01$ . a, b, c: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지각자의 연령에 따라 짧은 직모와 중간 길이 직모의 선호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짧은 직모는 18-19세 연령과 30대 연령층이 비교적 선호하는 편이었고, 20대 전반은 짧은 직모를 가장 싫어하였다. 중간 길이 직모는 18-19세 연령 집단이 가장 선호하였다. 검정색 머리와 밝은 갈색 머리 선호도는 지각자의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10대와 30대는 20대보다 검정색 머리를 더 선호하였고, 10대는 밝은 갈색 머리의 선호도도 높은 편이었다. 20대 후반과 30대 남성은 10대 및 20대 전반보다 밝은 갈색 머리의 선호도가 낮음으로써 연령이 높은 남성이 연령이 낮은 남성보다 밝은 갈색 머리를 싫어하였다. 밝은 갈색 머리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머리색과 매우 다르므로 연령이 높은 집단의 보수적인 태도로 인해 밝은 갈색 머리를 싫어하는 성향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10대는 검정색과 밝은 갈색을 모두 선호함으로써 헤어컬러 선호에서 다양한 것을 폭 넓게 수용하는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 V. 결론

본 연구는 여성 헤어스타일의 퍼머여부, 헤어 길이와 헤어컬러에 따른 남성 지각자의 이미지 평가와 선호도를 조사하며, 지각자의 연령에 따라 헤어스타일과 헤어컬러의 선호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피험자는 서울 지역의 18-39세 남성 154명이었다.

첫째, 요인분석 결과 여성 헤어스타일의 이미지는 4개 요인으로 도출되어 개성, 품위, 능력, 매력성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퍼머여부는 개성, 품위, 매력성 평가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다. 남성들은 여성의 직모를 퍼머보다 품위가 높다고 평가하였고 퍼머는 개성과 매력성이 높게 평가하였다. 긴 머리는 중간 길이와 짧은 머리에 비해 품위가 높게 평가되었고, 짧은 머리는 능력 요인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밝은 갈색은 품위는 낮았으나 개성이 높게 지각되었으며, 검정색은 개성과 매력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갈색은 품위와 매력성이

높은 편이었다.

퍼머여부와 헤어길이에 따라 매력성 평가는 유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어, 중간 길이의 직모는 퍼머보다 매력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퍼머여부와 헤어컬러에 따라 개성 평가는 상호작용효과가 있어, 밝은 갈색 퍼머는 개성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고 검정색 직모는 개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헤어길이와 헤어컬러에 따라 매력성 평가는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는데, 남성들이 가장 매력적으로 지각하는 것은 긴 갈색머리였고, 중간 길이의 갈색머리는 매력성이 낮게 지각되었다. 검정색 머리는 길이에 상관없이 모두 매력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품위 평가는 3개의 독립변인에 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어, 남성들은 긴 갈색 직모를 가장 품위있게 보았다.

셋째, 자극물에 따라 선호도 평가가 달리 나타나 직모가 퍼머머리보다 선호도가 높았으며, 갈색과 검정색은 밝은 갈색보다, 긴 머리는 중간 길이 및 짧은 머리보다 선호도가 높았다.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은 긴 갈색 직모였고, 두 번째로는 긴 검정색 직모가 선호되었다. 중간 길이의 밝은 갈색 퍼머는 가장 선호도가 낮았고, 그 다음에는 긴 검정색 퍼머와 짧은 길이의 밝은 갈색 퍼머의 선호도가 낮았다.

넷째, 지각자의 연령별로 볼 때 짧은 직모, 검정색 머리, 밝은 갈색 머리는 18-19세의 남성들이 선호하는 편이었고, 연령이 높은 남성은 연령이 낮은 남성보다 밝은 갈색 머리에 대한 선호도가 낮았다.

전체적으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남성들은 여성의 짧은 머리를 긴 머리보다 능력있게 보았고, 여성의 직모는 품위있게, 퍼머는 직모보다 매력적이며 개성적인 모습으로 지각하였다. 긴 머리는 품위있게 평가되면서 선호도가 높았는데, 긴 갈색 직모가 가장 선호되었다. 갈색은 품위와 매력성이 높게 평가되었으며, 긴 갈색머리가 더욱 매력적으로 지각되었다. 10대 남성은 헤어컬러 선호에서 다양한 것을 폭 넓게 수용하는 특성이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남성 중심의 직장에서 근무하는 여성들은 능력있는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서 머리를 짧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품위있고 우아하게 보이기 위해서

는 스트레이트형의 긴 갈색 머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성에게 외모매력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젊은 여성은 자연스럽게 웨이브진 갈색 머리를 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높은 연령층의 남성들과 함께 근무하는 직장여성들은 머리를 밝은 갈색으로 염색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사진 자극물의 평가는 실제 상황과 차이가 있을 것이며, 지각대상자로서의 자극물의 모델이 다양하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지각자로서의 피험자의 수가 적으며, 특히 30대 연령층이 20대보다 매우 적었으므로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넓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조사하여야 할 것이며, 헤어스타일 이미지 평가 시 남녀의 차이를 동시에 비교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인상형성에 영향을 주는 다른 외모 변인들의 효과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 참 고 문 헌

- 1) Terry, R. L., & Davis, J. S. (1976). Components of facial attractivenes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42, pp.917-919.
- 2) 도주연 (1991). 헤어스타일 변화에 의한 얼굴 이미지와 형태의 비교 고찰. *Computer Graphic Simulation*을 이용하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65-67.
- 3) 윤소영 (2001).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대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51-59.
- 4) 정해선, 강경자 (2004). 헤어스타일·길이와 모자유형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8(3/4), pp.460-471.
- 5) 윤지성 (2001). 헤어컬러(Hair Color)에 따른 이미지 변화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00-101.
- 6) 김재숙, 류지원 (2004). 헤어 길이와 헤어 컬러가 남성의 패션 이미지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 *한국의류학회지* 28(9/10), pp.1320-1328.
- 7) 김재숙, 이해숙, 이경진 (2003). 커플들의 헤어컬러가 인상형성과 귀인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생활과학연구지* 16(1), pp.85-96.
- 8) 한명숙, 하희정 (2003). 남·여 대학생의 『답다』에 대한 성역할 지각에 관한 연구: 두발, 신발, 장신구를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11(5), pp.767-777.
- 9) 김환 (2001). *열두손가락 업 스타일*. 서울: 도원출판, p.17.
- 10) 도주연 (1991). Op. cit., pp.65-67.
- 11) 김복숙 (1999). 여성 헤어스타일의 인상효과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19-120.
- 12) 윤소영 (2001). Op. cit., pp.51-59.
- 13) 정해선, 강경자 (2004). Op. cit., pp.460-471.
- 14) Peterson, D., & Curran, J. P. (1976). Trait attribution as a function of hair length and correlates of subjects preference for hair style. *Journal of Psychology* 93(2), pp.331-339.
- 15) 임남영, 강승희 (2003). 의복유형과 헤어스타일이 남성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 11(3), pp.340-351.
- 16) 한명숙 (2004). 남·여대학생의 두발, 신발, 장신구의 고정관념에 대한 연구: 선생님과 학생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8(11), pp.1404-1414.
- 17) 한유정, 정현주 (2005). 남자대학생의 여성 웨딩헤어디자인 및 제품기획에 대한 이미지 지각 형성.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9(3), pp.184-192.
- 18) 오인영, 김인숙 (2006).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유형에 따른 TV뉴스 여자 앵커의 인상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0(11), pp.1636-1647.
- 19) 하경연 (2006). 색채와 질감에 따른 남성 헤어스타일 이미지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8-9.
- 20) 이은지 (2002). 모발색이 체형 및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p.47.

- 21) Kyle, D. J., & Mahler, H. I. M. (1996). The effects of hair color and cosmetic use on perceptions of a female's ability.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0, pp.447-455.
- 22) 김재숙, 류지원 (2004). Op. cit., pp.1320-1328.
- 23) 윤지성 (2001). Op. cit., pp.100-101.
- 24) 김재숙, 이혜숙, 이경진 (2003). Op. cit., pp.85-96.
- 25) 한명숙, 하희정 (2003). Op. cit., pp.767-777.
- 26) 민유숙, 권수애, 박용, 이수경 (2006). 여교사의 외모에 대한 태도와 헤어 및 메이크업스타일 선호도. *한국생활과학회지* 15(6), pp.1091-1097.
- 27) 김복숙 (1999). Op. cit., pp.36-40.
- 28) 윤소영 (2001). Op. cit., p.34.
- 29) 이명희 (2002). 상황, 의복 유형 및 배색이 여성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6(3/4), pp.503-514.
- 30) Sweat, S. J., & Zentner, M. A. (1985). Attribution toward female appearance styles. In M. R. Solomon ed., *The Psychology of Fashion*. Lexington, MA: Heath/ Lexington Books, pp.321-334.
- 31) 홍병숙, 정미경 (1993). 여성 수트의 이미지 구성 요인에 관한 연구. *복식* 20, pp.73-82.
- 32) 이주현, 조공호 (1995). 의상디자인요소가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제1보): 의복 형태와 색채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9(5), pp.747-764.
- 33) 윤소영 (2001). Op. cit., pp.51-59.
- 34) 오인영, 김인숙 (2006). Op. cit., pp.1636-1647.
- 35) 임남영, 강승희 (2003). Op. cit., pp.340-351.
- 36) 한유정, 정현주 (2005). Op. cit., pp.184-192.
- 37) 도주연 (1991). Op. cit., pp.65-67.
- 38) Lee, M-H. (2004). Influence of hairstyle on women's professional image. *International Journal of Costume* 4(2), pp.56-65.
- 39) 오인영, 김인숙 (2006). Op. cit., pp.1636-1647.
- 40) 윤지성 (2001). Op. cit., pp.100-101.
- 41) 윤소영 (2001). Op. cit., pp.51-59.